시내버스 기사들의 고통 아시나요?

광주시내버스 운전사들이 식당과 화장실 등 휴식시설이 열악하고, 극성을 떨고 있는 불법주차로 정상 운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시내버스사업조합, 버스 운전사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사 2천100여명·시내버스 900여대가 사용 중인 차고·회차지는 모두 24곳인데 반해, 휴게실이나 식당·화장실 등을 제대로 갖춘 곳은 9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5곳의 차고·회차지는 앉아 쉴만한 곳이나 식당·화장실도 없어 인근에 사는 주택·회사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노상방뇨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 운전사들은 일부 도로의 경우 극심한 불법주차 때문에 버스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남구예술회관 근처 회차지에는 식당은 아예 없고, 청소도 전혀 안 된 간이 화장실이 전부다. 버스기사들이 다리를 뻗고 앉을 수 있는 벤치는 물론, 커피 자판기나 물을 마실 만한 공간·시설도 없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정차하는 운전사들은 버스 안에서 웅크려 새우잠을 청하며 식사는 반대편 종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남구 노대동 버스 차고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들은 종점인 이곳에서 한 정거장 전인 광주대 근처 노상에 버스를 세워둔 후 식사를 해결한다. 이곳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하지만 이것도 승객이 없을 때나 시도한다.

회차지 식당 9곳도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는 탓에 운전사들의 건강을 장담하기도 어렵다. 지난 7월 서구 한 차고지 식당에서 점심식사로 오리탕 등을 먹은 버스 운전사 10여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버스 운전사 김모(50)씨는 "당시 식중독으로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를 받았지만 근무시간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며 "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선 75번'을 운전하는 박병규(59)씨는 "점심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은 20여분 에 불과한데, 회차지에 식당이 없어 인근 식당까지 뛰어가거나, 아예 도시락을 싸오는 기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식사 시간 부족 도시락 '후다닥'

화장실 열악 주택이용·노상방뇨

피곤할 땐 버스 안에서 '새우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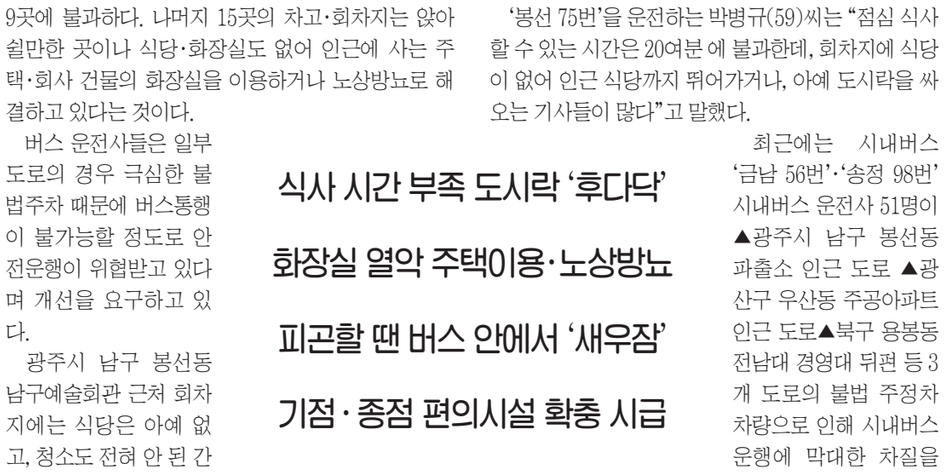
기점·종점 편의시설 확충 시급

최근에는 시내버스 '금남 56번'·'송정 98번' 시내버스 운전사 51명이 ▲광주시 남구 봉선동 파출소 인근 도로 ▲광산구 우산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북구 용봉동 전남대 경영대 뒤편 등 3개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내버스 운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광주시청에 노선 재조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90분 안에 버스를 몰고 가야 하는데, 이들 지역의 상습 불법주차로 110분 이상이 걸릴 때가 많다며,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곳에 버스를 몰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버스가 몇 대 들어가지 않는 종점의 경우 식당이나 휴식 시설을 짓기엔 무리가 있다"며 "하지만 버스 노조 등과 협의해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노선 조정은 중요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쉴 곳이 없어요"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광주시 남구 봉선동 남구문예회관 앞 회차지에서 뙤약볕을 피해 버스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쉬고 있다. 이곳에는 햇빛 가리개는 물론 벤치·식당 등 휴식시설이 없어 운전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예술 체전 … 예술 화장실'

염주체육관 내 예술화장실은 전자감응식 세면대〈왼쪽〉를 설치하는 등 최첨단 산업 기술에 남도미 넘치는 아트타일〈오른쪽〉을 부착해 문화와 산업, 풍류와 배려를 접목했다. 〈광주시청 제공〉

염주체육관·월드컵경기장 벽화·세면볼 등으로 단장

광주시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민체전, 예술체전'의 슬로건에 걸맞은 상징적 의미를 구체화한 예술화장실을 조성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예술화장실은 서구 염주체육관 1층 주 출입구 남·여 화장실을 리모델링했으며, 광주문화수도 건설과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핸드페인팅 아트타일 벽화, 공예가가 빚은 연꽃모양의 세면볼 등으로 꾸며져 있다.

냄새를 없애주는 천연 숯 타일, 지역 전략산업을 접목시킨 LED(백색 다이오드) 실내조명, 서해안 갯벌과 영암의 황토로 만든 천연페인트는 실내를 한층 쾌적하게 한다. 전자감응식 세면대, 여성들을 위한 아트타일 콘솔 등 지역 문화와 예술, 첨단산업 기술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다.

시는 염주체육관 외에도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 화장실 3곳(2층 남·녀, VIP룸)도 오는 20일까지 예술화장실로 단장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장실 안에서 남도의 멋과 풍류, 손님에 대한 시민의 배려를 느낄 수 있고, 다양한 문화·산업적 요소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가능성과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5·18 역사공원' 만들 기무부대 터

3만 5천㎡ 무상 인수 추진

옛 광주 기무부대 부지를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 곳 부지를 무상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17일 "서구 쌍촌동 옛 기무부대 터를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키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부지에 대한 무상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 쌍촌동 3만 5천여㎡의 부지에 자리잡았던 기무부대(505보안대)는 5·18 당시 광주학살을 지휘했던 신군부 본부가 있었던 곳으로 비상계엄과 5·18 과정에서 민주인사와 시민군의 구금, 고문수사가 이뤄진 5·18의 중요한 역사 현장 중 한곳이다.

시는 지난 6월 5·18 사적지보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8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사실상 지휘본부였던 이 부지를 사적지(제26호)로 지정했다.

시는 연말까지 수목 조사 등 환경성 검토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5·18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교육·체험 및 순례지 조성 등 공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기무부대는 2005년 북구 오치동 31사단으로 이전했지만 5·18 당시 시민군에게 고문과 조사 등이 가해졌던 보안대와 강당, 행정동, 체력단련장 등은 그대로 남아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무부대 터는 공시가격으로 170억원에 달하는 만큼 시가 직접 매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5·18의 상징성이 큰 만큼 최근 청와대와 국방부에 무상 양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상무지구의 5·18기념공원과 상무 시민공원 등 33만여㎡의 국방부 소유 부지를 1990년, 1993년에 각각 무상 양여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페트병 수돗물 '빛여울수'

광주시, 하루 2만 병 생산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7일 동구 용연정수사업소에서 페트병 수돗물인 '빛여울수' 공장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현판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자동화 시설을 갖춘 '빛여울수' 병수돗물 공장은 350㎖의 경우 2만병, 1천800㎖는 3천600병을 생산하게 된다. 물은 동복수원지 원수를 사용하며, 전국체전·비엔날레 등 공공기관 주요 행사, 비상급수 등에 무상으로 공급된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병 수돗물을 마셔보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북구, 좋은 식단 '우수구' 복지부장관상

광주시 북구가 '200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결과 '우수구'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음식점의 위생·친절 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좋은 식단으로 비엔날레 기간 관람객 유치에 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것도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 과정에서 삼각동 전통음식점 '조선시대'(대표 박인임)와 북구청 보건위생과 손광순 주사보의 노력이 돋보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시상식은 18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남도음식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음식문화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